

“FIFA 집행위원 당선 총력…한국축구 위상 높일 것”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새로운 도전

20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국축구에 안타까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개최국 선정에서 프랑스에 밀렸다. 여자월드컵을 포함해 FIFA 주관 모든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패거리를 이룩할 뻔 했지만, 아쉽게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전 세계를 누비며 여자월드컵 유치에 공을 들였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53) 회장에게도 아쉬운 결과였다. 비록 여자월드컵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정 회장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4월 30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바레인 마나마)에서 진행될 FIFA 집행위원 선거다. 한국이 국제축구계의 한 축을 담당하려면 꼭 이겨야 하는 선거다. 해외출장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스포츠동아 창간 7주년 기념 인터뷰에 응한 정 회장은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옛 말처럼 한 걸음씩 꾸준히 목표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스포츠 동아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 다시 뭉친 슈틸리케호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24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 소집돼 첫 훈련을 했다. 대표선수들이 본격 훈련에 앞서 가벼운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파주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김보경·윤석영·지동원 간절함 새 얼굴 이재성·정동호 기대감

다시 뭉친 ‘슈틸리케호’에는 간절함과 기대감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지난해 9월 슈틸리케호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돼 24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를 찾은 미드필더 김보경(26·위건), 왼쪽 풀백 윤석영(25·QPR), 공격수 지동원(24·아우크스부르크)에게선 간절함이 느껴졌다. 한동안 불박이 멤버로 꾸준히 태극마크를 단 3층 사지만, 2014브라질월드컵 이후 소속팀에서의 부침으로 대표팀과는 멀어져 있었다.

김보경은 “그간 간절함이 없었던 것 같다”며 안일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한편, “무엇이 부족했는지 깨닫게 됐다. (슈틸리케) 감독님 앞에서 첫 경기인 만큼 내가 어떤 선수인지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축구를 하기 싫을 때도 있었다”던 윤석영은 “감독님이 강조한 ‘대표팀 문턱이 낮아선 안 된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동원도 “소속팀 경기를 거의 못 뛰며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기대감에 부른 선수들도 있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시험대에 오른 이재성(23·전북현대)과 측면 수비수로 기용될 정동호(25·울산현대)는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의 활약을 발판으로 대표팀에 합류했다. 김보경, 윤석영, 지동원처럼 슈틸리케 감독의 호출을 처음 받았지만 느낌은 또 다르다. 부담이나 간절함이 아니다. 물론 큰 무대가 주는 압박감이 있겠지만, 오히려 ‘처음’이라는 설렘 속에 마음 편히 경기력을 발휘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재성은 “장장한 선배들과 함께 뛰는 상상이 현실이 됐다. 형들을 위협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경쟁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주 | 백슬기 기자 bsm@donga.com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4월 30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에서 치러질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 선거에 나선다. 한국축구의 위상에 걸맞게 FIFA 집행위원 한 명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정 회장의 생각이다.

스포츠동아DB

FIFA 진입 땀 정보확보·의사결정 등 유리
팬과 스킨십 노력…K리그 중계 확대 과제
축구협회가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취임 3년째를 맞았다. 그 때와 지금 우리 축구는 어떻게 변했는지.

“취임 첫 해 ‘비전 헤트트릭 2033’ 중장기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을 2033년까지 우리가 향할 방향을 정했다. 오직 결과 위주가 아닌 열정과 배려, 존중, 그리고 순수한 축구의 즐거움을 되살리고자 한다.”

-비전 가운데 의도대로 잘 이뤄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면.

“팬이 없으면 스포츠는 존재할 수 없다. A매치 때 팬들이 진행요원이 되고, 대표팀 공식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팬 퍼스트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도 대중과의 스킨십을 위함이었다. 또 유소년들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골

든 에이지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지도자와 심판 양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의원 전부가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리스펙트 캠페인도 좋은 시도였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있다면 브라질월드컵?(웃음)”

-해외에서 느낀 한국축구의 위상은 어떤지?

“월드컵 후 많은 분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그런데 아시아게임 금메달, 아시안컵 준우승으로 ‘역시 한국’이란 분위기로 바뀌더라. 아시아권에선 우리 축구 인프라와 K리그를 높이 평가한다. 일본의 저변, 중동과 중국 등의 자본력을 고려할 때 감사한 일이다.”

-FIFA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면.

“FIFA나 AFC 핵심부로 진입하지 않으면 불편함이 많다. 굵직한 이슈의 의사 결정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데다, 정보도 막막하다. 우리 위상이라면 FIFA 집행위원 한 명 정도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990년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로 일할 때 국내기업으로는 처음 FIFA와 스포서 계약을 했다. 이후 기업경영과 축구행정을 동시에 경험하며 세계축구의 중심

부로 향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회장에 도전하면서 축구산업의 3000억원대 진입 목표를 언급했다.

“재정 확대의 핵심은 스포서와 중계권 계약이다. 취임 전 계약은 중도 증액이 어려웠지만, 새로 계약할 스포서와는 한국축구 현재와 미래 가치를 고려해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대표팀의 선전과 K리그의 성공이 필수다. A매치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 중계료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후원사의 만족도 역시 높아진다. 이뿐 아니라 협회 차원의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과 상품을 수익으로 연계할 방안도 모색 중이다.”

-A매치와 K리그의 상생도 늘 지적됐는데, 해답을 찾았는지.

“프로축구연맹과 협회가 대립하는 일이 거의 없다. 다양한 현안을 놓고 꾸준한 의사소통을 한 결과다. K리그는 한국축구의 젖줄이다. K리그 중계 확대는 협회에도 중요한 과제다. 내년 A매치 중계권 계약이 새로 시작될 텐데, K리그가 더 많이 방송될 방안을 찾고 있다. 작은 이벤트이지만, 3월 A매치부터 K리그 시

즌권 소지자는 입장권을 30% 할인하는 혜택을 마련했고, 해외 리그들에게 K리그 개막 응원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작은 것부터 협업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고 있다.”

-회장 선거제도 개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정부와 대한체육회에서도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생활축구연합회와의 통합 역시 현행 선거제도와 연관돼 조심스레 접근하고 있다.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축구혁신 TF팀’이 구성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축구 수장으로 어떤 협회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비전 헤트트릭 2033’ 모토가 ‘축구 그 이상을 위하여’다. 축구가 축구인뿐 아니라 남녀노소에 대한민국 넘버원 스포츠가 되고, 축구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헌한 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올해 우리의 모토이자 아시안컵 슬로건인 ‘타임 포 체인지(Time For Change)’처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모두에게 ‘축구협회가 정말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도록 하겠다.”

손흥민 “차범근 전 감독님과 다른 내 길을 개척하겠다”

■ 본지 창간 7주년 스타 인터뷰

우승 문턱서 패…저절로 눈물 나더라
그래도 울보라고 놀리지 말아주세요
분데스리가 제패·챔스리그 평정 목표

초록 그라운드에선 누구보다 크고 당당한 거인처럼 비쳐지지만, 실은 눈물 많고 감수성 예민한 영건이다. 한국축구가 아팠을 때 손흥민(23·레버쿠젠)은 항상 울었다. 최선을 다했던, 모든 힘을 쏟았던 거친 승부를 마친 뒤 한국의 패배를 알리는 전광판 스코어를 바라보면서 그가 내건 한숨과 탄식에 축구팬들은 물론 온 국민도 함께 울었다. 1월 2015호주아시아컵 결승전이 끝난 뒤에도 손흥민은 울었다. 반면 전 브라질월드컵에서 주먹으로 땅을 치며 눈시울을 붉혔던 그는 아시아 정상을 놓고 맞붙은 개최국 호주와의 120분 혈투 후 다시 눈물을 쏟았다. 이렇듯 손흥민의 눈물은 대개 ‘오늘의 아픔’에서 비롯되지만, 다른 의미도 담고 있다. 비록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똑같은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승리를 향한 열망이다. 스포츠동아 창간 7주년 인터뷰의 첫 질문도 ‘울보 손흥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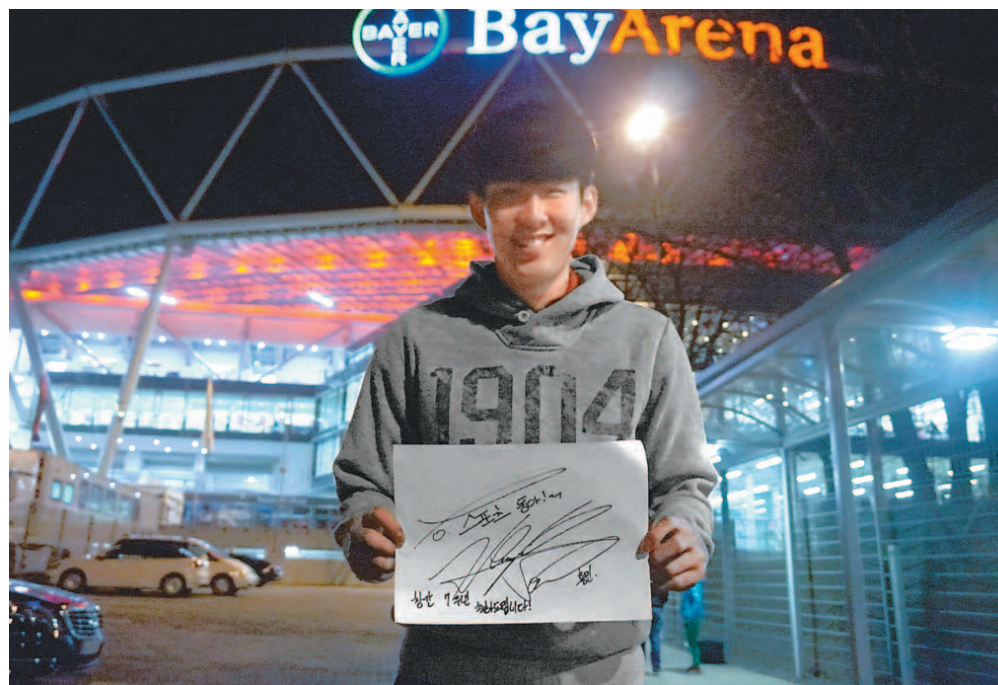
●울보 손흥민

-팬들은 종종 ‘울보’라고 부르더라.

“축구선수는 일회성일발 수밖에 없다. 승리의 기쁨을 느끼자마자 패배의 슬픔이 찾아오곤 한다. 당연히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서로 다르다. 아시안컵 결승에 힘겹게 오르고, 우승 문턱에서 꿈이 꺾이고 나니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 그래도 놀리지 말아주셨으면 한다.”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하는 남자’다. 사랑의 대상은 당연히 축구다. 이곳 독일에서 언젠가 들었던 표현인



손흥민이 레버쿠젠의 홈구장 바이아레나 앞에서 스포츠동아 창간 7주년을 축하하는 사인지를 들고 미소 짓고 있다.

레버쿠젠(독일) | 박종민 통신원

데, ‘축구는 스포츠보다 위대하다’고 하더라. 축구는 날 남자로 만들어주고, 서로를 돕도록 하고, 열정을 쏟게 한다.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내일의 손흥민도 축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힘겨울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솔직히 한 경기를 위해 준비하고, 실전을 뛰고 나면 외로움을 틔들었다. 물론 기계가 아닌 만큼 힘들 때는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냥 눈을 감아버린다. 낮잠, 족집, 새우잠 등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잔다. 어쩌다 여유가 생기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비디오축구 게임을 즐긴다.”

-다른 삶을 사는 자신을 상상해봤나.

“오직 축구, 또 축구다. 만약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진로를 바꿨을지 모른다. 아바, 희망조차 없었다면 내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 아

빠(손흥정)가 축구를 그만두게 하셨을 거다. 다행히 내게는 건널 만한 시련과 도전이 주어졌다.”

●태극전사 손흥민

-유독 대표팀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다.
“같은 목표로, 함께 땀 흘린 형들과 친구들이 먼저 떠오른다.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 모두 함께 준비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이 흐른다. 얼마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행이 좌절됐는데, 지난해 브라질월드컵과 올해 초 호주아시아컵 모두 똑같다. ‘내가 더 잘하지 못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 눈물이 나더라.”

-아시안컵 결승 때 후반 종료 직전 동점골을 넣고 관중에게 뽀개 외쳤는데.

“꼭 이기겠습니다”였다. 오래 기다린 우승트로피가 다시 한 번 우리 앞으로 다가왔다는 생각에 절로 관중석을 향해 뛰었다. 분위기가 정말 굉장했는데, 혹시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하다.”

-국가대표 손흥민은 어떤 꿈을 꾸는가.

“당당히 말하고 싶다. 아시안컵 우승, 그리고 월드컵 결승 진출이다. 부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겠다.”

●빅리거 손흥민

-박지성(토트), 차두리(FC서울) 등 베테랑들이 ‘손흥민은 이미 위대한 선수가 되고 있다’고 했다.

“(박)지성이 형은 롤모델이다. 형처럼 되려면 한 함정 났었다. 그런 훌륭한 선배들이 좋은 말을 해주셨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경기, 행복한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출전하는 경기마다 불과 몇 분을 뛰는데 그칠지언정, 종료 휘슬이 울리던 쓰러질 때까지 뛰겠다고 항상 다짐한다.”

-독일에서도 국내에서도 항상 차범근 전 감독과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선 쉽게 비교할 수 있겠지만, 까마득한 후에 입장에서 그 분은 어마어마한 존재다. 꼭 그 분을 따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엄두도 나지 않는다. 다만 내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동아 독자 여러분도 각자 분야에서 저마다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을 거다. 나 역시 모든 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겠다.”

-프로선수로서 포부가 있다면.

“아마 모든 선수들의 입장이 같을 거다. 생각도 비슷하리라 본다. 유럽, 그리고 독일에서 뛰고 있는 나로서 꼭 분데스리가를 제패하고 싶다. 컵대회도 그렇고, 반면이 빗겨가긴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역시 반드시 평정하겠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레버쿠젠(독일) | 박종민 통신원